

# 순서가 조금 다른 것 뿐

제 32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제32기 김용민 관세사

## I 인사말

추워지는 계절에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두운 말이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시점이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만큼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32기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차 동차로 합격하였고 저의 총 수험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제목을 “순서가 조금 다른 것 뿐”이라 설정한 까닭은 지금 몹시 힘들어할 불합격자들에게 보내드리는 응원의 메시지이자, 새로 시작하실 분들에게 이 시험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꼭 드릴말씀은, 시간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김병수 관세사님께서 작년에 떨어진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인데, 이 문구로 2015년을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서가 조금 다를 뿐 시간과 노력은 배신하진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믿고 공부하면 다음 순서는 여러분일 것입니다.

## II 수험생활 (2012.07 ~ 2015.07)

### 1. 워밍업 ; 다짐부터 시작 전까지

2011년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전역 후 갓 복학생들의 의욕은 하늘을 찌릅니다. 저 역시 학과탐은 아니어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성적을 만들었고 의기양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2학년이 끝나갈 무렵 관세사에 관심을 가진 친구의 손에 이끌려 합격자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만난 선배 관세사님의 권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만 사놓고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관세사 시험을 올림픽정신으로 참여만 하였습니다. 공부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 정말 마음 편히 보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학원수업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우매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의 올림픽은 불합격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관심만 있었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학기가 끝났습니다.

### 2. 동차-1 (2012.07~2013.07)

#### (1) 관세 전도사 (2012.07, 2012.08)

여름방학에 집에서 누워만 있다 보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불현 듯 사놓은 교재가 생각나서 먼지를 털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1차가 쉽다 쉽다 해도, 교재로만 판단해서는 갈피를 못 잡아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보유하고 있던 교재로 공부하려면 종합반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학원의 교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강 수업은 포기하고 인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1차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2차수업도 병행하여 들었습니다. 동차를 노린다고 생각하니 왠지 거만해 졌습니다.

목차에서 보셔 아시겠지만 이 시기 초반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07월부터 09월 즉 방학기간엔 12시부터 18시까지만 수험생 이었고 그 외의 시간엔 동네친구나 학교 선후배, 동기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 열심히 소개만 하고 다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살면서 술을 제일 자주마신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인강을 들었습니다. 정말 인강만 들었습니다. 방학기간에 끝나갈 때 쯤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격히 찾아오는 창피함에 휴학 버튼을 눌렀습니다.

## (2) 가능성의 발견 (2012.09 ~ 2013.04)

곰곰이 생각해보니 관세사라는 시험은 머리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당연히 더 유리하겠지만, 머리가 나쁘더라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의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1차 기본 인강을 듣고, 2차는 학원 실강을 들었습니다. 수험생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학습시간을 늘렸습니다. 09시에 시작해서 22시까지 공부하는 스케줄 이었습니다. 그래도 관세전도사시절에 한번 들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접근할 때 훨씬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기본 인강을 마치고, 1월부터 2차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서 내후년(2014년)합격을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나, 스스로가 똑똑한 사람이라 믿은 탓에 무작정 모의고사를 보았고 물론 개판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월부터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1차 문제풀이수업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문제풀이수업의 필요성을 묻는다면, 2차는 선택의 문제요, 1차는 필수적이라고 답합니다. 문제풀이 수업은 1차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을 문제푸는 기계로 만들도록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관세법 같은 경우 지금 저에게 가져다주어도 고득점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단, '제한된 시간 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면, 1차 문제풀이 트레이닝을 마친 수험생들을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회계학에서 과락이 나지 않으면 합격 하는게 1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계학을 제외한 과목에서는 반드시 고득점이 나와야 합니다. 회계학 점수를 올리는 것 보다, 나머지 과목의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아마 전략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회계학은 실제시험에서 '멘붕'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50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50점을 받기 위해선 늦어도 09월부터는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머리 좋은 분들은 예외이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차과목에 대해서는 밑에서 따로 대목차를 잡아 상세히 서술하겠으나, 1차과목에 대해서는 여기에 간략히 서술하겠습니다. 올해 3동차를 준비하면서 1차를 어떻게 공부하였는지는 또 다른 목차를 잡아 서술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1차생이시라면,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2차생이나 유예생이시라면 바로 다음 목차로 넘어가세요.

## 1. 관세법

관세법은 다양한 유형으로 강사님이 문제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였다면, 80점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관세법은 고득점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100점을 노리는 시험이 아님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개항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를 틀렸다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시라면 관세사보다는 세관공무원시험을 추천 드립니다. 1차시험은 절대평가이며 그 기준선은 전 과목 평균60점, 단일 과목 40점일 경우 과락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세법과목에서 이를 강조하는 까닭은 과목의 특성상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TA특례법도 빈출부분 위주로 학습하되, 최소화하여 학습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차랑 연관되어 있으니 다 맞춘다 생각하고 공부해봤자, 2차 시험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라서 보라는 말이 아니라 전체를 보되, 중요한 부분을 한번 더 보라는 말씀입니다.

## 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쪽 원장님(김용원 관세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랐습니다. 정말 관세사님이 시키는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만 익숙해지면 꾸준히 점수가 오르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유형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찾아낸 후 고민 없이 4번을 찍고 다음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역영어와 회계학에 특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차시험은 시간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배로 준다면, 합격평균을 80점으로 올려도 더 합격자가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되,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찍고 잊으십시오. 아는 문제 풀 시간을 확보하세요. 우리시험의 1차는 2차와 연관성이 사실상 없어, 괜찮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은 지금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개념이 없어 뭐라 드릴말씀은 없으나,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는, 그리고 이 과목이 출제되는 자격사 시험 중 관세사시험만의 독특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수준에서 적정히 준비만 해서 가신다면, 고득점이 나와 낮은 회계점수를 커버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단, 2교시에 80분동안 회계학과 같이 보기 때문에, 문제풀이부터 마킹까지 20분정도에 끝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늘 빨리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3. 회계학

회계학은 사건으로는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수업을 듣고 따라간다고 해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런 유형은 어떻게 했더라" 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었고 3분의 1정도는 아예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아, 이 친구는 공부 진짜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9월부터는 술도 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회계학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고득점이 나온다면 축하드립니다. 다만, 보편적으로는 공부를 하셨다면 늘 50점 언저리의 점수를 받으실 것이고, 이는 좋은 징조입니다. 혹시나, 공부가 누가 봐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어서 40점 나오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신에게 솔직해지시고 기본인강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회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1차합격을 포기한다와 동의어이기 때문에, 원가회계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차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학습하여 평균 75점정도로 1차를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놀고 싶었지만, 저는 대학교 고시반 소속이었고, 동차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서 1주일 뒤부터 2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 (3) 호갱님? X (2013.04 ~ 2013.07)

4월에는 2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자신과 타인을 속이며 모의고사를 보러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볍게라도 2차를 준비하였다면, 모의고사를 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범위는 둘째치고 당장 한글자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모범답안지를 받으시고, 본인이 앞으로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혹시 가볍게 준비하여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때 최선을 다하여 쓰시고, 여백에는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2014년에 본격적인 유예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고득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범답안을 보시면 막막하시겠지만, 언젠가 맞게 될 때를 조금 당겨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3. 유예(2013.08~2014.07)

### (1) 또다시 방황(2013.08, 2013.09)

2013년 7월에 본 시험은 당연 유쾌한 점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무식할수록 용감하다고 감히 합격을 바랬습니다.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 (2) 진짜수험생 (2013.10~2014.01)

합격자발표가 난 후에 정신을 바로 차렸습니다. 제가 떨어진 건 전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같은 고시반 소속의 형님들이 전원 불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시험에 대해 무게감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경험이었지만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 암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한글자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몇몇 분들에게 스터디를 제안하여 교재를 맞추고 파트를 나누어 목차를 외우고 목차 안의 내용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체감상 스터디는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이었습니다. 관련해서는 공부방법에 상세히 서술토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지라,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제 공부시간이 줄어드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 고시반에서 나가 동네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 (3) 암기머신, 모의고사에 목숨걸다. (2014.02~2014.07)

목차암기가 끝나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은 귀찮고 괴롭지만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또 집근처 도서관을 다니고 혼자 공부하니 08시부터 24시까지 학습시간이 대폭 늘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자주 찾아오긴 했습니다.

당시 하루일과는 제가 만든 목차노트를 죽어라 써보고 외워보고 목차 밑에 키워드나 주요문장을 써보면서 하루

를 보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이 기간까지는 하루에 펜을 한 자루씩 쓰면서 여기에 보람을 느끼는 변태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교재목차를 외우고 모의고사를 들어가니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작부터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유예기간 실패요인은 목차암기 무한반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라, 모의고사의 중요한 취지 자체가 경쟁력을 통해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시키고, 공부시키는 것인데, 저는 단순히 “학원성적 우수 = 합격” 으로만 생각하여 늘 기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학원성적이 높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 공부가 되어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그 이상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나치게 모의고사점수를 의식하며 시간을 보냈고, 텍스트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만남을 피하고 도서관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봐도 모른척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 (4) 2014년 시험. 나는 왜 실패하였는가

2014년 7월 12일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전날 너무 떨려 아무 공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약국에서 우황청심환이라는 이름도 기억이 안나, “저기, 그거 주세요”라고 약사님께 말씀드리니 다른 무언가를 받아 황급히 손가락으로 우황청심환을 건내 받기도 하였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심장소리만 듣다가 새벽에 어머니가 썰어주신 키위를 먹고 시험장소에 일찍 도착하였습니다.

근래의 시험유형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요하고 있습니다. 즉, 주어진 목차가 이해형이면 이해를, 암기형이면 암기를 서술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형을 요구하건, ‘내가 준비한 것은 이것이니 이거나 받아라’ 라는 마인드로 서술하였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 굉장히 건방진 수험생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신역시 정말 건방진 친구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건 누구나 하는 실수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수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수험공부가 오래된 분일수록, 자신이 준비한 어떤 답안지에 대한 확신 탓인지 출제자가 묻는 유형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늘 출제자가 묻는 유형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본인이 학원에서 아주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더 좋은 답안지를 쓸 수 있습니다.

#### 4. 동차-2(2014.10 ~ 2015.07)

##### (1) 지옥 같던 나날들(2014.10 ~ 2014.12)

공부도 충분히 하였다고 느꼈고, 학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합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습니다. 합격자발표 하루 전날, 같이 공부했던 4명이 술을 먹었는데, 저와 Y군은 학원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합격을 확신했고, S군과 K군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아, 저와 Y군이 계속 위로하였습니다. 합격자 발표일 31기 관세사가 된 것은 S군과 K군이었고, 저와 Y군은 훗날 32기 관세사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모든 순간이 싫었습니다. 몸도 떨리고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합격자들의 권유와 주변사람들의 응원에 한번만 더 해봐야

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1차를 합격하면 그 다음해의 1차시험이 면제되지만, 절대로 유예까진 가지 않겠다고, 3년차 동차로 끝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당분간은 외출하기가 싫어 집에서 인강을 틀고 처음부터 공부하되, 부족했던 부분은 몇 번이나 돌려보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서브노트에 대한 욕심을 많이 버리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가차 없이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부하되 극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극 세부적인 것이 출제되었다고 해도 이를 서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감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아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쉬우나,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던 것이었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기본으로 들어가 하나씩 뜯어 분석해보니, 모두 부실공사였습니다. 2014년이 끝나기 전까지 기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유예기간에 하도 암기를 독하게 해놔서 그런지, 이시기에서는 펜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다독과 정독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 (2) 1차 올림증(2015.01 ~ 2015.04)

1월에 1차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10월부터 회계는 인강으로 듣고 있었으나, 회계는 늘 두려운 과목이니까요. 아무튼, 1월에는 2차와 회계, 2월에는 2차와 회계와 내세법, 3월,4월에는 1차올림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다시 복귀했을 때 의외로 예전의 암기가 배신하지 않고 빨리 돌아와 주어 3월 4월에는 2차를 과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1차는 붙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감을 빨리 되찾고 안정적으로 1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3) 동차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2015.05 ~ 2015.07)

칼을갈며 재기를 노렸기 때문에, 1차시험 당일날만 맥주한잔 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2차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각 되살리기 용도로 1차시험과 아예 관계가 없는 HS와 관세평가 두 과목 위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과목만 1주일정도 보고나니 조금씩 개념들이 되돌아왔으며, 나머지 두 과목시간을 아주 조금씩 할애하여 2주정도 보내니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차 전과목은 휘발성이 강하여 동차생 상황에서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없는 바, 기출문제분석을 통해 빈출부문을 확실히 짚는 편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모의고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는 단순히 시간체크와 현장분위기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모의고삿날이 부담으로 생각되면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생소한 개념보단 빈출되는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분을 더 깊게 더 다양한 관점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합격을 하였습니다.

## III 과목별 학습방법

### 1. 개요

저의 과목별 학습방법(2차)은 2014년과 2015년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래의 출제유형이 암기형 보다 이해형에 가까운 점은 사실이나, 여전히 암기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2. 관세법

### (1) 강의

제갈현근관세사님의 기본, 심화인강을 온라인으로 보았습니다. 기본인강의 경우 4달에 걸쳐, 2번 정도 보았고, 심화인강의 경우에는 1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점은 시간이 허용하는 한 실강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강은 원하는 시간 때에 들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실강이 집중도와, 이해도 면에 있어서 좋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대로 된 1회독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터수업과 문제풀이수업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저는 심화 과정만 해도 벅차다고 느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수업을 수강한 합격자는 고득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나, 수험생의 수준이 상향함에 따라 어느 정도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니,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하여 맞는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욕심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나,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 (2) 2014년

제갈현근관세사님의 관세법 책을 주 교재로 하여 교재 속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2015년에 이해를 토대로 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암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초석은 이시기에 모두 쌓았습니다.

암기라 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차시절 때 본 모의고사에서 소멸시효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당시 제가 소멸시효라는게 어떤 개념인지는 얼추 알고 있었으나,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나 한글자도 못 쓴 기억이 있습니다. 법률용어는 일상용어와 상이하어 우리가 공부하는 순간은 괜찮으나 막상 당황하게 되면 기억이 안날 수 있습니다. 즉, 백번 써보든 백번 읽어보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 과목은 전체적인 뿌리를 외우고(예- 1장이 뭐고 2장이 뭐고...1절이 뭐고, 2절이 뭐고...) 그 하위개념들을 추가로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오늘본걸 반드시 내일 또 보고, 모레 또 보아 정말 귀찮을 때까지 봐야 좀 빨리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시험에서는 57.5점을 받았습니다.

### (3) 2015년

전체를 보되 비중을 두었습니다. 2014년엔 제1장이든 제3장이든 모두 외웠으나, 올해에는 기출된 부분을 더 보고 수업 중 중요하다고 강조된 부분은 완전히 이해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도 많이 해 보고, 혼자서 밥 먹을 때 중얼거리기도 해보고 하면서 차별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암기가 먼저인가, 이해가 먼저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암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되면 책을 끊임없이 찾아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만, 암기가 선행되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한건 결국 암기와 이해는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출제 문제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고 본인의 입맛이 아닌 출제자의 입맛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도 준비해가고 이해도 준비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시험에서는 65점을 받았습니다.

### 3. 관세율표 및 상품학

#### (1) 강의

본 과목은 수험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힘든 과목일 것입니다.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체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천희 관세사님의 수업은 반드시 두 번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마 처음엔 수업을 들으셔도 남는 게 없어서 강사님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1회독을 하고 기본수업을 다시 시작하면 조금씩 다가오는 과목이 HS입니다. 왜냐하면 HS는 정말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2) 2014년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유예기간 때에는 기본인강만 듣고 기본만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HS는 단순히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을 암기한다고 해결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일정부분에서는 깊숙이 학습이 필요하고(이를 해설서가 필요한 부분이라 합니다), 넘어갈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야 합니다. 2014년에는 통칙과, 1류부터 97류 전반을 암기식을 따서 외우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암기는 이시기에 모두 끝났고, 하루에 약 4시간정도를 매일 할애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주텀으로 공부할 때엔 연관된 상품군으로 묶어 공부하고, 월요일엔 가장 자신있는 부분을, 금요일엔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을 공부하여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2014년 시험에서는 58점?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 (3) 2015년

저와 같이 공부했던 2014년의 합격자들이 이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제외 규정에 대한 암기까지 되어있었고, 제가 2014년엔 보지도 않았던 해설서까지 일정부분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심화과정의 수업 및 문제풀이과정까지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조금 리프레쉬하고자, 기본 수업 시 해설서에 대한 강의를 같이 하신다는 000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코스는 조천희관세사님의 강의를 선행하시고, 같은 수업을 한번 더 들으시고, 000교수님의 강의나, 조천희 관세사님의 심화과정을 들으실 것입니다.

동차생 분들에게 말씀드릴 점은, 1차시험이 끝난 직후 가장 막막한 과목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열심히 학습하시고 암기하셨다면 기억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1차 끝나면 다 사라질 것이라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암기가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암기가 완성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끝난 뒤엔 과목에 대한 학습이 끝났다고 넘겨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출제경향이나 체점평을 보아 짐작컨대, 반드시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학원에서 강조하는 품목이 특히 더 그러할 것입니다. 매우 전략적인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커리큘럼을 설정하고 학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루면 피해가 막심한 과목이니, 꾸준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시험에서는 74.5점을 받았습니다.

### 4. 관세평가

## (1) 강의

관세평가 강의의 시작은 타 학원의 강사님께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로만 접하게 되면 가장 재미있고, 쉬워보이는 과목이 관세평가입니다. 그러나 익히 들으셨겠지만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입니다. 마냥 재미있고 쉽게 접하게 된다면 시험장에서 본인이 모든 답안을 작성하여도 과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중점으로 본 과목 학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 2014년

사실 처음 동차를 노린 기간에 제가 짚은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어 주변으로부터 신들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점수는 38점입니다. 본인이 준비한 부분이 출제된다 해도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14년에는 법조암기와 협정암기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잘한다고 자아도취에 빠져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고 하루 2시간정도 썩 보는 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다수의 합격자들이 관세평가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시험에서는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관세평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니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는 관세평가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41점의 점수를 받게 되었고, 41점은 사실상 과락을 의미합니다.

## (3) 2015년

2014년엔 극히 실무중심적인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김병수 관세사님의 기본강의와 마스터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특히 마스터강의는 실강으로 다녔습니다. 시험실패 직후에 김병수 관세사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병수 관세사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관세평가 시험유형이 매년 변동되고 있어, 후년에 사례형 문제 말고, 법조를 쓰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모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사님의 예상대로 2015년엔 법 유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홀수년엔 법, 짝수년엔 사례가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형은 관세사님이 출제하신 모의고사나 기타자료들로 학습하시면 되십니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구하시는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매우 어려우실 것이지만, 하나하나 사례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실 것입니다.

법 유형은 토씨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많이 써 보셔야하고, 귀찮더라도 풀 쉼표로 작성해보셔야 합니다. 암기식을 믿으시지 마시고 문장자체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혼동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가산요소로서의 운송비와 공제요소로서의 운송비 그리고 4방법상 운송비와 같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표현과 성격이 다른 것이 많이 혼동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따로 묶어 함께 공부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015년 시험에서는 55점을 받았습니다.

## 5. 무역실무

## (1) 강의

저는 전공이 무역입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나 CISG의 개념이 생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점도 좋아 공부할 때 굉장히 수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점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매우 암기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핑계로 암기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3대 협약이라 불리는 인코텀즈, UCP, CISG는 협정전반의 암기를 요합니다. 그런데 막막하여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뒤늦게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권수 관세사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고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과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병호 관세사님의 강의역시 수강하였습니다.

## (2) 2014년

2013년에는 암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에는 암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교재상의 모든 목차를 암기하고, 협정은 되도록 문장을 외웠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올 때 쯤엔 해당 개념이 몇 조인지 까지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였습니다.

문제는 2014년에 50점으로 출제된 URC522에 대해 심도 깊게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학원에서 늘 좋은 점수를 받았어도 실제 시험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4년의 점수는 54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3) 2015년

무역실무는 교재도 바꾸지 않고 작년과 다름없이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범위설정을 조율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게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유형을 분석하여 올해 계약론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느끼고, CISG와 Incoterms는 빈틈없이 공부하였습니다. 2014년도의 박병호 관세사님의 모범답안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의 유형이 사실상 박병호 관세사님의 유형과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3대 협약부분에서 심화적인 주제는 협정 외에도 다른 사항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올해 출제된 위험의 이전의 규정과 관련하여 CISG와 Incoterms의 동이점과 상이점도 이에 해당합니다. 모범답안을 보면 순간은 이해가 되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개념이 가물가물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아침에 도서관을 가는 길이나, 점심 먹고 독서실로 이동하는 길 등을 이용하여 매우 친숙하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았습니다.

2015년 시험에서는 63.5점을 받았습니다.

## 6. 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이 세과목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끼과목이라 표현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목의 비중을 무겁게 여기며 매일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관세법이나 무역영어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짚고 오기 때문에 2차 시험준비에 거부감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과목의 경우 매우 생소한 유형이다 보니, 당장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심지어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암기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힘들어도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공부한다면 시험 날엔 반드시 웃으실 것입니다.

환특법의 경우 전 유형이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이후의 유형도 과거의 유형과 닮아있을 것이므로, 간

이 없으신 분들은 기출문제위주로 공부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대외무역법은 외국환거래법에 비해 범위는 넓으나 내용은 쉽습니다. 암기식을 땀으셔서 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연습해 가지길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극도의 절도가 필요하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매우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어 다들 웃으며 서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공부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극 세부적인 영역까지 출제가 되다 보니,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분들은 올해 시험에서 속상하였을 것입니다. 공부하되 정말 과감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부분은 세줄 정도만 준비하였습니다.

#### IV 마치며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20대이실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 20대의 1년은 30대의 3년, 40대의 5년이라 합니다. 이 소중한 시기를 할애해서 공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합격의 확신을 갖고 공부하신다면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

합격자가 91명이라는 소리는 91가지의 합격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합격 수기는 제가 3년 동안 느끼고 올해 시험에서 자신감을 가졌다는 스토리입니다.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면서 여러분의 학습계획에 보탬이 되길 소망합니다.

곧 추운계절이 오는데 건강유념하시고 언젠가 업계에서 웃으며 뵙기를 소망합니다.

제32기 김용민 관세사 드림